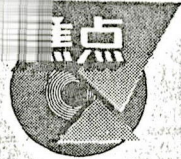


태평양 전쟁 유족회
회장 754는 20일
후서울태평도 프레스센
19층에서 對日사죄및
전쟁구제판에 관한 한일
공동성명을 갖고 「한국
」 희생자들의 대한배상부
를 철저히 이행해온 일본
」 상대로 법정투쟁을 전개
」 나갈것임을 밝혔다.
유족회는 특히 「전쟁당시
」의 전쟁범죄로 사망
」자나 부상당한 사람을 비
」해사한인류공동도 정신
」의 희생자는 물론 원폭
」해자들의 실상을 재조명
」고 일본인의 작성을 촉구하
」고 촉구했다.

「위한 실정과 대안으로
」소송을 벌여겠다는 의지
」를 밝히 귀추가 주목된다.
유족회 楊順任상임이사
」장 노부유키(小野誠
」)변호사를 한일공동에
」22명씩 4명의 연사들이
」한 기조연설과 피해자들
」생생한 증언을 간주하면
」다.



기조연설

일본인이 지난 65년의 맹목
」한 침략정도로 양국국민간
」의 원수관계는 한때의 모순
」관계가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의 협정에서
」30년대를 10년의 걸쳐
」매년 3천만달러의 무상의
」보조금으로 20년대를
」상기저지관으로 한국의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 협정이 당시 일본측이
」해자를 2만1

‘日帝의 상처’ 訴訟 통해 치유

시되는만큼 정확한 피해배
」상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조차 되
」지 않은채 이뤄진 한일협정
」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만큼
」일본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였」그들이 저질렀던 부도
」덕성을 일깨우는 한편 피해
」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기
」위해 일본측이 특별인법을
」제정할때까지 노력해 나가
」야 할 것이다.

△崔귀옥씨(59·여·정동·
」전북해원면) 19살 나던 해
」에 일본으로 끌려간 뒤 곧바
」로 滿洲奉天으로 옮겨져 피
」복공장에서 3년간의 강제
」로 일했다.
그동안 수없이 매를 맞아
」유골에멍이 들지 않은데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
」다.
어떤 때는 공장에서 사들
」씨발을 옮기는 바람에 풀을
」뜯어먹거나 쓰레기더미를
」뒤져 찾아낸 음식찌꺼기를
」을 입에 억지로 주서넣어 허
」기를 면했었다.
12살 되던 해에 3년치 봉
」급으로 관급 2필을 받았는
」데 「여태껏 고생한 대가가
」아 할 것이다.

△崔귀옥씨(59·여·정동·
」전북해원면) 19살 나던 해
」에 일본으로 끌려간 뒤 곧바
」로 滿洲奉天으로 옮겨져 피
」복공장에서 3년간의 강제
」로 일했다.
그동안 수없이 매를 맞아
」유골에멍이 들지 않은데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
」다.
어떤 때는 공장에서 사들
」씨발을 옮기는 바람에 풀을
」뜯어먹거나 쓰레기더미를
」뒤져 찾아낸 음식찌꺼기를
」을 입에 억지로 주서넣어 허
」기를 면했었다.
12살 되던 해에 3년치 봉
」급으로 관급 2필을 받았는
」데 「여태껏 고생한 대가가
」아 할 것이다.

1990. 08. 22

정치적 타협한 韓·日

被害진상 날낱이 폭

도와서인지 무사히 고향에
」달라할 수 있었다.
△裴명구씨(61·정동·전
」북해원면) 崔귀옥씨와 같
」은 고향에 살았다.
나도 11살때 끌려가 崔씨
」와 같은 피복공장에서 일했
」다.
실을 찾다가 손이 빨려들
」어가는데 손가락 하나
」를 잃었다.
당시 崔씨와 헤어진 뒤 소
」식을 모르고 지나다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 만
」났다.
△金性坤씨(67·정동·서
」울시는현동193) 11살때
」인 10마지를 소작하고
」있었는데 「정음을 나가지
」않으면 농작물을 빼앗다
」고 해서 구중아버지와 형제
」4명을 모두 5명의 일본인
」로 갖다.
탄광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가스가 폭발해 60명이 사
」말했다.



對日사죄및배상청구재판에 관한 韓·日공동설명
」회가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태평양
」전쟁희생자들에게 대한보상청구문제가 깊이 있게 논
」의됐다.
(樞鍾午기자)